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The Relations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Peer Experiences to Children's Self-Esteem

도현심*
Doh, Hyun Sim

최미경**
Choi, Mi Kyung

ABSTRACT

The relationships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peer experiences to children's self-esteem were examined with a sample of 433 5th- and 6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236 boys and 197 girls) and their mothers. Children answered the questionnaires on peer experience (victimization by peers and peer aggression) and self-esteem, and their mothers answered the questionnaires o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Maternal warmth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self-esteem both in boys and girls. The warmer their mothers, the higher the children's self-esteem. Maternal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was related to self-esteem only in boys; the more permissive/nonintervenient the mothers, the lower the boys self-esteem. Peer experiences (victimization by peers and peer aggress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elf-esteem both in boys and girls; the more victimization by peers and peer aggression, the lower their self-esteem. Maternal warmth was related to victimization by peers only in girls; the warmer the mothers, the less victimization by peers experienced by girls.

The effect of maternal warmth on self-esteem was mediated by victimization by peers for girls, which indicates that maternal warmth doesn't have a direct influence but an indirect influence on victimization by peers of children.

Victimization by peers was related to peer aggression both in boys and girls. The more victimization by peers they experienced, the more peer aggression they showed.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I. 서론

'인간의 역량 또는 유능함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 정의되는(Harter, 1982; Crocker & Major, 1989; Tashakkori, 1993)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건전한 인성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3; Medinnus, 1965; Wylie, 1979).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 특히 중요한 타인들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발달된다(Cooley, 1902; 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의 발달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어 왔으며(Manning,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 발달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널리 연구되어져 왔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대체로 어머니의 수용 및 온정이나 애정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Gecas, & Schwalbe, 1986; Richards,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 Sears, 1970).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면접한 연구(Sears, 1970)에서,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따뜻한 양육태도를 가질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을 연구한 김기정(1984)도 수용과 자율은 학문적 및 비학문적 자아개념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거부나 제재를 살펴본 연구 결과들은 불일치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부모의 거부, 제재, 통제 및 권위적인 양육행동 등은 아동의 자아개념이나 자아

존중감 발달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Litovsky & Dusek, 1985; Openshaw, Thomas, & Rollins, 1983, 1984; 박정선, 1985; 오순환, 1991)는 보고가 있는 반면, 부모의 통제가 자아존중감과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결과(김경연, 1987; Young, 1993) 및 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보고(Anderson & Hughes, 1989)도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연구한 Halpin과 동료들(1980)은 부모의 통제, 외적 처벌, 성취에 대한 압력, 특권의 박탈, 감정적인 처벌 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반면, 통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무관함을 보고한 연구(김경연, 1987) 및 통제의 효과가 확일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아동이 성장할수록 통제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Anderson & Hughes, 1989)도 나타났다. 또한 허용이나 방임 및 느슨한 훈육에 대해서도 결과들간에 상당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허용성과 느슨한 훈육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Hill, 1980; Kawash, Kerr, & Clewes, 1985)가 있는 반면에, 허용성이 자존감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Young, 1993)도 있다. 이처럼,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가 연구자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자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연구 결과들간에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여아보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Gecas, et. Al., 1986; Hoelter,

1984; Margolin, Blyth, & Carbone, 1988) 이 보고된 반면에,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Felson & et al., 1989; Gecas, 1971; Kaplan & Pokorny, 1972; Openshaw, et. Als., 1984; Richards, et. al., 1991)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 중요한 환경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함께 또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또래 관계 중 특히 최근에 또래 공격성(peer aggression) 즉, 교내외에서 강한 아동이 약한 아동에게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해를 가하는 행동(Hodges, Malone, & Perry, 1997)과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Olweus, 1991)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교내외 폭력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공격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차우규, 1997; 최자은, 1997)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즉, 피해 아동(이하, 피해아)들은 우울감 및 불안의 증가, 자아존중감 저하와 외로움 등을 포함하여 학령기 동안 다양한 적응문제를 야기하며(Alsaker, 1993; Bjorkqvist, Ekman, & Lagerspetz, 1992; Boulton & Underwood, 1992; Khatri, Kupersmidt, & Patterson, 1994; Olweus, 1978; Rubin & Asendorpf, 1993), 통제감 상실로 인해 심리적인 적응 문제도 나타내었다(Taylor, wood, & Lichtman, 1983). 또한 심

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자신에 대한 취약감(sense of vulnerability)과 불안, 억제행동(inhibition)을 경험하기도 하였다(Rubin & Asendorpf, 1993). 종단적 연구에서도 피해아들에게 우울감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고(Hodges, Malone, & Perry, 1995; Khatri et al., 1994; Kupersmidt & Khatri, 1995; Olweus, 1992), 초기 사춘기(young adolescents)에 괴롭힘을 당한 아동이 10년후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Olweus, 1992). 또한 최근 들어 가을과 봄학기에 두 차례 자료를 수집 분석한 Egan과Perry(1998)의 단기 종단적 연구에서도 피해아들의 자아존중감 특히 자신이 지각한 사회적 유능감이 가을학기보다 봄학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달리 또래 공격성은 아동 발달과 관련시킨 또래 관계 연구에서 오랫동안 활발히 연구되어온 주제이다. 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동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일방적이기 보다는 쌍방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야기시키는가 하면(Rogenberg & Kaplan, 1982), 공격성이 높은 경우 자기보전적 기능이 약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Bibring, 1973). 이외에 아동의 공격성을 다룬 연구들은 가해 아동(이하, 가해아)들이 충동적 성격과 타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졌으며 피해아에 대해 거의 동정심을 느끼지 않고(Olweus, 1978) 심리적인 불안도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Olweus, 1992)는 보고를 하고있다. 또한,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또래를 공격하는 것은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어,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또래로부터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였으며(Perry,

Williard, & Perry, 1990), 남아는 신체적 공격성이 그리고 여아는 언어적 공격성 및 표현적 공격성에서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Maccoby & Kacklin, 1974).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또래 공격성 관련 연구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Egan과 Perry(1998)에 의하면,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즉 피해아들의 반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대부분 괴롭히는 행동이나 폭력에 대해 내재적 행동(intenalizing behavior)(쉽게 울고, 불안을 보이고, 공격자에게 복종하거나 물질을 제공하기 등)을 나타내지만, 또 다른 유형의 피해아들은 외현적 행동(externalizing problems)(파괴, 비효과 공격, 논쟁 등)을 나타낸다. 피해아들 가운데 공격적인 행동으로 맞서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은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또래를 공격하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 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또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어머니의 과보호 경향이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Finnegan, Hodges, & Perry, 1996; Olweus, 1978). 또한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으며(Casidy & Berlin, 1994), 이러한 아동들은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향이 있었다(Finnegan, Hodges, & Perry, 1996). 이러

한 결과는 어머니가 친밀하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낼 때 자녀가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갖으며 자신을 가치롭게 여겨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또래 승인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낮춘다는 연구(Perry et al., 1988)와 일맥상통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공격성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애정 결핍, 지배적인 태도, 처벌 등이 자녀에게 학습되어 공격적 성향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Bandura & Walters, 1959; Cantrell & Prinz, 1985; Eron, 1963; Feshbach, 1964; Hoffman & Saltzstein, 1967; Olweus, 1993; 고경희, 1995; 박덕규, 1983) 어머니의 허용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제심 발달을 저해해 공격성을 조장한다고 보고해왔다(Olweus, 1993).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처벌, 지나친 허용성, 거부적 행동, 비밀관적인 행동 등은 자녀의 공격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Perry et al., 1988).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경험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등의 세 변인이 서로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중기에 들어 아동의 또래 관계는 점차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근거할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경험을 동시에 고려해 본다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또래 경험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이는 또래 경험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모두 유의한 관계이어야 하고, 또래 경험이 통제될 때 어머니의 양

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거나 유의도가 감소하여야 한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아동을 분리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경험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또래 경험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 간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Y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433명(남아: 236명, 여아: 197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이다.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이 시기 아동들 사이에 교내의 집단 괴롭힘이나 약탈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내의 약자 괴롭힘이나 피해아와 관련된 연구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부모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비율(아버지: 51.9%, 어머니: 57.7%)을 차지하였고, 대학 졸업자가 아닌 부모들은 모두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상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및 교사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고위관리직(20.0%), 전문직(19.5%), 그리고 자영업(15.9%)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가 67.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회사원 및 교사(12.2%) 전문직(5.7%)과 피고용직 및 서비스직(4.6%)의 순이었다. 1990년의 교육별, 1993년의 직업별 인구분포자료(통계청, 1994)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연구대상은 중·상류층에 포함된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 경험,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들로 구성된다. 각 질문지의 문항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진 Likert식 척도로,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각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양육행동 척도를 기초로 도현심(1996)이 작성한 조사도구의 온정성 요인과 Schaefer(1959, 1961a, 1961b, 1965a, 1965b)의 이론적 틀을 기초로 박영애(1995)가 작성한 조사도구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요인 등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48문항들에 대해 varimax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 중에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네개의 문항이 제외되었다(거부/제재의 2문항, 허용/방임의 2문항). 다음으로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두 문항이 제외되었다(거부/제재 요인과 온정성 요인에서 각각 한 문항씩).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는 온정성(8

문항), 거부/제재(24문항), 그리고 허용/방임(10 문항)의 세 요인으로 구분되는 총 42문항이 이용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온정성 .81, 거부/제재 .93, 허용/방임 .74였다(표 1).

2) 또래 경험 척도

또래 경험 척도는 Perry와 동료들(1988)의 'Items on the Modified Peer Nomination Inventor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또래에 의한 괴롭힘(7문항)과 또래 공격성(7문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4문항들에 대해 varimax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이었으며, Perry와 동료들(1988)의 요인구조와 일치하였다. 다음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요인에서 전체신뢰도를 낮추는 한 문항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또래 경험 척도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6문항) 및 또래 공격성(7문항)의 두 요인으로 구분되는 총 13문항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 요인에 '나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 '다른 아이들은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맞고 밀린다' 등의 문항들이, 또래 공격성 요인에 '나는 다른 아이들을 놀린다', '나는 주위의 아이들을 때리고 밀친다', 그리고 '나는 다른 아이들과 싸우려고 할 때가 많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각 하위요인별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의 Cronbach's α 는 각각 .78과 .70이었다(표 1).

3)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Coopersmith(1981)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측

정도구(Self-Esteem Inventory)를 이현주(1989)가 아동용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Coopersmith(1981)의 SEI는 아동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자아상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자아영역의 25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7문항을 제외하고 1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는 .84였다(표 1).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 척도 | 문항수 | 신뢰도 |
|------------|-----|-----|
| 어머니의 양육행동 | 42 | .83 |
| 온정성 | 8 | .81 |
| 거부/제재 | 24 | .93 |
| 허용/방임 | 10 | .74 |
| 또래 경험 | 13 | .74 |
| 또래에 의한 괴롭힘 | 6 | .78 |
| 또래 공격성 | 7 | .70 |
| 자아존중감 | 18 | .84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서울 Y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들의 도움으로 교실에서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 회수하였으며,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 편에 보내어 담임 교사들에 의해 회수되었다. 배부된 517부의 질문지 중에서 부모용과 아동용이 모두 회수된 440부의 질문지(회수율: 85%) 가운데 미완성된 질문지(7부)를 제외하고 총 433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 보기 위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들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 경험이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 경험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 경험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온정성은 남녀 아동 모두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남아: $r = .15, p < .05$; 여아: $r = .22, p < .01$). 즉, 어머니의 온정성이 높을수록 남녀 아동 모두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남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허용/방임과 자아존중감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여($r = -.13, p < .05$), 어머니가 허용/방임적으로 양육할수록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거부/제재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

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는,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남아: $r = -.37, p < .001$; 여아: $r = -.43, p < .001$) 및 또래를 공격하는 것과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남아: $r = -.40, p < .001$; 여아: $r = -.38, p < .001$)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남녀 아동 모두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래를 공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경험간에는 어머니의 온정성과 여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에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25, p < .001$). 즉,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여아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과 남녀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머니 모든 양육행동 요인들과 남녀 아동의 또래 공격성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 경험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M | SD |
|---------------|---------|---------|--------|---------|---------|---------|------|------|
| 1. 어머니의 온정성 | - | -.40*** | -.17** | .04 | -.05 | .15* | 2.90 | .39 |
| 2. 어머니의 거부/제재 | -.43*** | - | .27*** | -.01 | .11 | -.05 | 2.13 | .41 |
| 3. 어머니의 허용/방임 | -.04 | .19** | - | .01 | .04 | -.13* | 2.0 | 1.31 |
| 4. 또래에 의한 괴롭힘 | -.25*** | .14 | .01 | - | .42*** | -.37*** | 1.9 | 0.55 |
| 5. 또래 공격성 | .03 | .04 | -.01 | .36*** | - | -.40*** | 1.9 | 1.44 |
| 6. 아동의 자아존중감 | .22** | -.14 | -.06 | -.43*** | -.38*** | - | 2.87 | .88 |
| M | 2.86 | 2.18 | 2.00 | 1.86 | 1.82 | 2.76 | | |
| SD | .42 | .40 | .33 | .51 | .44 | .84 | | |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는 남아(N=236), 아래는 여아(N=197)의 수치임.

* $p < .05$ ** $p < .01$ *** $p < .001$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 경험의 역할

표2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 경험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세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여러 요인들 가운데 어머니의 온정성, 여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및 자아존중감은 각각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온정성과 여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온정성과 여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어머니의 온정성과 여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온정성은 여아의 자아존중감과 더 이상 아무런 유의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여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통제하였을 때 이를 통제하기 전에 존재하던 어머니의 온정성과 여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단순상관관계가 사라지고 어머니의 온정성은 여아의 자아존중감에 더 이상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어머니의 온정성과 여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른 양육행동

요인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아무런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또한 또래 공격성도 어머니의 모든 양육행동 요인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3〉 여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중다회귀분석(N=197)

| 독립변인 | B | β |
|----------------|----------|---------|
| 어머니의 온정성 | .12 | .11 |
| 또래에 의한 괴롭힘 | -.36 | -.40*** |
| R ² | .20 | |
| F | 23.58*** | |

*** $p < .001$

3.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간의 관계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2), 남녀 아동 모두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남아: $r = .42, p < .001$; 여아: $r = .36, p < .001$). 즉, 남녀 아동 모두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록 또래에 대해 더 공격적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활발한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경험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나 또래 공격성이 통제될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

계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 혹은 또래 공격성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성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이것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거부/제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김경연, 1987)와 일치하며, 통제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온정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보고(도현심, 1996)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박영애, 1995) 및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Anderson & Hughes, 1989)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허용/방임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허용/방임과 남아의 자아존중감간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어머니가 허용/방임적으로 양육할수록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허용성이 아동의 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Young, 1993)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나, 부모의 복종적 태도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연결된다는 보고(박정선, 1985) 및 부모의 허용성이 자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들(Anderson & et. Al., 1989; Kawash, et. Al., 1985)과는 불일치하고 있다. 허용/방임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불일치한 결과들이 보고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및 또래 공격성과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남녀 아동 모두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래를 공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로 접어들기 직전의 또래 관계가 매우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있어서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또래 관계와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피해 아들이 우울감 및 불안의 증가, 자아존중감 저하와 외로움 등을 포함하여 학령기 동안 다양한 적응문제를 야기하였다는 보고들(Alsaker, 1993; Bjorkqvist, Ekman, & Lagerspetz, 1992; Boulton & Underwood, 1992; Khatri, Kupersmidt, & Patterson, 1994; Olweus, 1978; Rubin, & Asendorpf, 1993)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또래로부터 공격을 받은 아동들에게 우울감의 발생(Hodges, Malone, & Perry, 1995; Khatri et al., 1994; Kupersmith & Khatri, 1995; Olweus, 1992) 및 자아존중감의 감소(Olweus, 1992)가 나타났다는 종단적 연구 결과와 자아존중감 중 특히 자신이 지각한 사회적 유능감이 감소했다는 단기종단적 연구 결과(Egan & Perry, 1998)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래 공격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춘다는 결과는, 가해아들의 자기보전적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연구(Bibring, 1973)를 지지하나 가해아들에게 심리적인 불안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Olweus, 1992)과는 다소 상치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경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온정성과 여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만이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여

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여아의 또래 경험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행동의 상대적 중요성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들은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며, 가족 내의 삶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남아들은 가정 밖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등 사회적으로 좀더 활발하여 가정내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의 온정성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낮춘다는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이 아동을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이러한 또래 승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낮추게 되는 것(Perry et al., 1988)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온정성 외에 어머니의 거부/제재, 허용/방임과 남녀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들과 또래 공격성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거부, 통제 및 제재나 허용, 방임적인 태도등이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다소 상치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경험의 척도가 자기 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격적인 성향을 묻는 질문 등에 아동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성을 가진다고 보여지는 또래 평가 및 교사 평가와 같은 척도를 사용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세 변인들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어머니의 온정성과 여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토대로, 어머니의 온정성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차지하는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온정성은 여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통제할 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온정성은 여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하였듯이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경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또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관계가 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아동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gan과 Perry(1998)가 피해아들의 반응으로 제시한 외현적 행동(externalized behavior)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아들이 공격적인 특성을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남녀 피해아들은 또래로부터 공격을 경험할 때 파괴, 비효과적 공격, 또는 논쟁 등으로 가해아에게 대항함으로써 다시 가해아들을 자극하게 되어 또다시 괴롭힘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아동들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의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보고(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997)와도 일치한다. 즉, 대부분의 아동들이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험과 더불어 또래를 공격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자간의 유의한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와 달리 피해아들의 반응이 대부분 내재적 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Olweus, 1984)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간에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Perry, et al, 1988)에 근거할 때,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간의 관계를 밝혀본 연구가 극히 드물게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또래에 의한 괴롭힘 및 또래 공격성과 같이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 및 또래 공격성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영향력을 통해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이를 주제로 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들이 매우 드문 상황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들의 특성을 비롯한 가정 환경 요인 등 보다 폭 넓은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경희(1995). 유아의 공격성 수준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현심(1996). 어머니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박덕규(1983).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공격성. 서울 : 배영사.
-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 141-156.
- 박영애(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선(1985). 모의 직업 및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89).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우규(1997). 초·중학교 학생들의 도덕 의식 및 도덕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자은(1997).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폭력은 싫어요.
- 통계청(1994). 한국의 사회지표.
- Alsaker, F. (1993). Bully/victim problems in day-care centers: Measurement issues and associations with childrens psychological health.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LA.
- Anderson, M., & Hughes, H. M.(1989).

-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 463-465.
- Bandura, A. & Walters. R.H.(1959). Adolescent Aggression. Dependency Conflicts in Aggression delinquents. *Journal of Issues*, 4. NY : Ronald Press, pp. 52-6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jorkqvist, K., Ekman, K., & Lagerspats. K. (1992). Bullies and victims: Their ego picture, ideal ego picture and normative ego pictur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iatry*, 23, 307-313.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antrell. V.L. & Prinz. R.J.(1985). Multiple perspectives of rejected, neglected and accept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3. NO. 6, pp. 884-889.
-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91.
- Cooley, C. H.(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opersmith, S.(1981). *SEI : Self-Esteem Inventories*. To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rocker, J., & Major, B.(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Eron; L.D.(1963). Social Class parental punishment for aggression and Chil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 Felson, R. B., & Zielinski, M. A.(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27-735.
- Feshbach, S.(1964). The Function of Aggression and Regulation of Aggressive Drive. *Psychological Review*, 71.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6). Preoccupied and avoidant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28.
- Gecas, V.(1971). Parental behavior and dimentions of adolescent self-evaluation. *Sociometry*, 34, 466-482.
- Gecas, V., & Schwalbe, M. L.(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Halpin, G., G. Halpin & T. Whiddon(1980).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to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mong American Indians and white children. *Journal of social*

- Psychology*, 111, 189-195.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275-385). New York: Wiley.
- Hill, J. P.(1980). The family. In M. Johnson(Ed.), *Toward adolescence: The middle school years. The Seventy-nin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dges, E. V. E., Malone, M. J., Jr., & Perry, D. G. (1995). Behavioral and soci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eer victimization. In N. R. Crick, recent trends in the study of peer victimization: Who is at risk and what are the consequenc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Hodges, E. V. E., Malone, M. J., Jr.,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Hoelter, J.(1984). Relative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on self-evalu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255-262.
- Hoffman, M.L. & Saltzstein, H.D.(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 Kaplan, H. B., & Pokorny, D.(1972). Sex-related correlates of adult self-derogation: Reports of childhood experi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6, 536.
- Kawash, G. F., Kerr, E. N., & Clewes, J. L.(1985). Self-esteem in children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The Journal of Psychology*, 119, 235-242.
- Khatri, P., Kupersmith, J. B. & Patterson, C. J. (1994).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as predictors of self-report of behavioral and emotional adjustment.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Human Development, Pittsburgh, PA.
- Kupersmith, J. B., & Khatri, P. (1995).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across adolescence. In N. R. Crick
- Lamborn, S. D. ,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0.
- Litovsky, V. G., & Dusek, J. B.(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373-388.
- Maccoby, E. E., & jacklin, C. N.(1974). *The*

-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nning, P. C.(1989).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s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 Margolin, L., Blyth, D. A., & Carbone, D.(1988). The family as a looking glass: Interpreting family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from a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8, 211-224.
- Medinnus, G. R.(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Eds.), *Disruptive behaviors in school*. New York: Wiley.
- Olweus, D. (1992). Peer victimization: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 Olweus, D. (1993). Peer victimization: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 Openshaw, D. K. Thomas, D. L., & Rollins, B. C.(1983). Socializa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Symbolic interaction and social learning explanations. *Adolescence*, 18, 317-329.
- Openshaw, D. K., Thomas, D. L., & Rollins, B. C.(1984).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259-274.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s of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ichards, M. H., Gitelson, I. B., Petersen, A. C., & Hurtig, A. L.(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5, 65-81.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 Kaplan, H. B.(1982). Self-attitudes and deviant responses. In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concept*. Illinois: Harlan Davison, Inc.
- Rubin, K. H. & Asendorpf, J. B.(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chaefer, E. S.(1959).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aefer, E. (1961a). Converging conceptual models for maternal behavior and for child behavior. In J. C. Glidewell(Ed.),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 Springfield, II : Thomas.
- Schaefer, E. (1961b). Multivariate measurement and factorial struct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American Psycholo-*

- gist*, 16, 345-346.
- Schaefer, E. S.(1965a).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3.
- Schaefer, E. S.(1965b).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Sears, R. R.(1970).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s and gender rol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1, 267-289.
- Tashakori, A.(1993). Gender, ethnicity, and the structure of self-esteem: An attitude theory approac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4), 479-488.
- Taylor, S. E., Wood, J. V., & Lichman. R. R. (1983). It could be worse: Selective evaluation as a response to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9, 19-40.
- Wylie, R. C.(1979).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Vol. 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Young, M. H.(1993).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Ann Arbor MI: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